



그림은 내 영혼의 호흡, 괴로움이자 기쁨

구필로 누드 크로키 작업하는
김영수 화백

입으로 붓을 쥐는 화가가 있다. 김영수는
진행성 근육병으로 온몸이 마비되어 입으

로 그림을 그리는 구필화가다. 20대 초반이던 지난 1974년 근육병 발병 사실을 알고 그림 공부를 시작한 그는 30여 년이 흐른 지금, 이미 다섯 차례의 개인전과 150여 회의 그룹전을 연 유명 화가가 되어 있다. 그림을 그리므로써 '살아 있음'과 '자유로움'을 느낀다는 그를 찾아가 그만의 작품세계를 직접 들어보았다.

글 이동환 자유기고가 | 사진 전석병

누드 드로잉을 통해 만난 구필화가

부조리한 일이지만, 인류 역사상 사랑 받은 예술가들의 삶은 하나같이 고난의 연속이었다. 물론 평생 큰 걱정 없이 살다간 예술가도 간혹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개는 너무 가난했거나 일반인은 상상하기 힘든 역경을 겪었다. 내가 주목한 화가 김영수 역시 누구 못지않게 고통을 겪은 예술가다. 굳이 다른 점을 찾는다면 그의 고난은 진행형이라는 사실이다.

2006년 3월에 나는 화가 김영수를 처음 알게 되었다. 실로 우연한 만남이었다. 웹서핑 중 발견한 누드 한 폭이 내 시선을 붙박이게 만들었다. 대담한 필치로 내 감정을 움직인 화가가 누군지 궁금했다. 어찌어찌 그의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 맘껏 작품을 감상한 뒤 프로필을 보고서야, 그가 30여 년 넘게 근육병을 앓아온 장애인이며 목 밑으로



필자와의 인연을 만든 김영수 화백의 누드 크로키 작품. 차가운 듯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주는 이 작품을 보는 순간 필자는 '시선이 붙박이는 느낌'이었다고 말한다.

조금도 움직이기 힘든 구필화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작품에 이미 깊은 교감과 소통을 느낀 내게, 그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은 걸림돌이 아니었다.

당시 그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만남을 요청했고, 그 만남이 나로 하여금 그의 작품 세계를 깊이 알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1년 4개월이 흐른 지금, 나는 그에 관한 또 다른 글을 쓰기 위해 다시 그의 자택을 찾았다. 그의 구필은 여전히 힘이 넘쳤고 작품에 대한 열정도 마찬가지였다. 은근히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얼굴색이 좋아 보여 내심 기뻐지만 근육병이 얼마나 더 진행되고 있는지 차마 묻지는 못했다. 건강이 어떠시냐고 여쭙는 건 아무래도 실례 같다며 내가 말꼬리를 흐리자 그는 늘 그렇듯 온화한 표정을 짓는다.

“실례는요 무슨... 특별히 어디가 더 아프거나 하지는 않지만 갈수록 육체적 한계를 느껴요. 표현하고 싶은 대로 붓질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지요. 하지만 눈곱만한 힘이라도 남아 있는 한 절대 붓을 놓지는 않을 겁니다.”

그는 고려대학교에서 건축학을 전공하던 스물한 살 때(1974년) 자신이 진행성 근육병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하늘이 노랬다. 힘겹게 대학을 졸업했지만 그는 건축학도로서 미래를 설계할 수 없음을 깨닫고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래도 구원은 있었다. 그림이었다. 화가가 꿈이기도 했던 그는 당시 추계예술대 교수 오수환(현재 서울여대 교수) 씨로부터 3여 년 동안 서양화를 배웠다. 그러다가 1982년, 근육병 치료를 위해 미국에 갔다.

“하지만 더 나빠진 몸으로 3년 후 귀국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숨과 절망 속에 방황만 했지요. 생애 가장 힘든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1986년부터 손으로는 더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지요. 그나마 판지를 뜯어내는 작업으로 그림에 대한 욕구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 말고는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1992년 즈음에 그는, 진행된 근육병 탓으로 판지 작업도 맘껏 할 수 없다는 좌절감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설상가상, 결혼까지 염두에 두었던 여인이 그의 곁을 떠나고 말았다.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저를 여자 쪽 집안에서 받아들일 리 없었겠지요. 원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먼지 쌓인 옛 그림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끝인가 싶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TV를 통해 한 여성 구족화가를 보게 되었지요. 무슨 빛 같은 게 뇌리를 스쳤어요.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가 불현듯이 타올랐지요. 그건, 이렇듯 무력하게 살다 죽을 수 없다는 일종의 오기였습니다.”

미친 듯 다시 그림에 매달렸다. 입술이 부르르고 잇몸에서 피가 나도록 그는 그리고 또 그렸다. 비로소 사는 것 같았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다.

“아내를 만난 건 사실 그 이전이었어요. 어떤 모임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정도의 사이였는데 운명이었는지, 혼자 남겨진 제게 연민을 느꼈는지(웃음),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제가 입으로나마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건 전적으로 아내의 그림자 같은 내 조 덕분입니다. 아내가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당연히 없으니까요.”

아내의 도움으로 현재까지 그는 다섯 번의 개인전(95, 99, 04, 06, 07)과 150여 차례의 그룹전을 열었다. 첫 개인전은, 불혹을 넘기면서 점점 심화되는 근육병의 고통을 잊고자 몰입했던 판지 작업과 추상화, 그리고 스산한 도시 골목 풍경이 주를 이뤘다.

“그림 말고는 삶의 끈이 보이지 않았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 이려고도 살아야 하는지, 절망이 가슴을 칠 때마다 닥치는 대로 그렸고 판지를 뜯어냈지요. 이 길이 아니면 삶이 없다고 스스로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당시 저의 작품 활동은 철저하게 고통을 잊기 위한 작업이었지요. 육신이 경직될수록 작품에 몰입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인가? 그 당시 작품들 색조와 분위기가 어둠 일색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감상은 전적으로 보시는 분 몫이니까(웃음) 느낌에 따라 전체가 어둡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어두운 분위기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요. 저도 모르게 내면의 고통이 화면에 스며는 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굳어가는 육신 앞에 그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그는 문득 자연에 눈길을 돌려 경기도 포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예술가의 간절 한 바람을 실현시켜주고자, 아내는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언제 어디든, 남편이 자연을 호흡할 수 있는 곳이라면 만사 제치고 동행했다. 단순한 동반자가 아닌, 예술적 동지인 아내의 헌신에 힘입어 그는 맘껏 자연을 만끽했다.

“노을이 물드는 산하를 볼 때마다 경건한 생각이 들어 저절로 심호흡을 했지요. 집에서 숨쉬는 것조차 고통이라고 여겨왔지만, 그 얼마나 오만한 자괴였는가를 깨달 았답니다. 살아 숨쉬는 사실이 새삼 행복했어요. 바닷가에서는 쪽빛으로 일렁이는 파 도의 포말을 따라 아이마냥 고개를 저어보기도 하고요. 비릿한 갯내가 그렇게 달콤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자주 울컥했지요. 슬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몸이나마 웅대 한 자연과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해서죠. 모든 게 감사했으니까요. 특히 아내한테요.”

예측불허의 생성, 누드 드로잉의 매력

두 번째 개인전 후, 포천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서울 삶을 시작하면서 그는 누드 드로잉 에 눈길을 돌린다. 붓질이 쉬워서가 아니다.

“1997년 봄이었을 거예요. 인사동 어느 갤러리에서 공개 드로잉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호기심에 가봤지요. 마치 수술실 의사처럼 진지하고 빠른 손놀림으로 새로운 형체 를 창조하는 작가의 모습이 너무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모델의 거친 호흡과 흐르는 땀, 그리고 생명체에서 뿜어 나오는 생생한 긴장감에 그만 몸서리를 치고 말았지요. 그 즉시 누드 드로잉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처음 그의 작품을 접했을 때, 누드 드로잉에서 여백을 중시하는 한국화의 미 덕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지와 먹, 그리고 물감의 어우러짐을 좋아합니다. 번짐과 함축이 만들어내는 여 백, 그리고 색조를 비틀었을 때 분출되는 예측불가의 결과가 저를 빠져들게 하지요. 그 래서 평가와 상관없이 제 모든 작품에 애착이 크답니다. 평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긴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내가 제 작품에 대해 혹평이 심하거든요. 자기 마음에

속 드는 그림은 왜 안 그려주냐고 가끔 그래요.”

이 말에 아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니라는 듯 민망한 표정으로 웃어보였다.

그는 2000년부터 아예 ‘선사랑’이라는 장애인 누드 드로잉 모임을 만들어 회장을 맡았다. 그리고 매달 두 번씩 모델을 섭외해 다른 장애인 예술가들과 함께 그림을 그린 다. 모임을 이끄는 일은 힘든 일이다. 그렇게 열정을 바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누드 드로잉은 강렬한 매력이 있는 분야예요. 음악과 모델, 그리고 화가가 만들어 내는 일종의 행위예술이지요. 현장성이 강하기 때문에 매시간 그림이 달라지기도 합니 다. 예측할 수 없는 형상이 화폭에 심어졌을 때의 희열 같은 것도 큰 몫을 하지요. 모델 의 빠른 움직임에 따라 정신없이 그리다보면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되거든요. 온 정신과 힘을 쏟고 나면 말할 기운조차 없답니다. 그러나 작업에 몰두한 뒤에 차오르는 뿌듯함 이 피곤함을 상쇄시키지요. 그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에 강도 높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물을 보는 분석적 시각이 새로워져요. 그리고 열정을 바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 작업이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에요. 드로잉 작업을 통해서 걸로 드러나지 않는 새로운 형상을 이끌어내고 싶을 뿐입니다. 작품 속에 제 고통이 침잠하든 잠깐의 희열 이 우러나든, 그저 끝없이 진행 중일 수밖에 없는 붓질을 계속하는 거지요.”

아름다움의 구현체인 인체를 표현하는 일이 결코 녹록할 리 없다. 김영수는 바로 그 번뇌를 진행 중이라는 말로 대신하는 것이라.

특별히 염두에 두거나 영향을 받은 흐름이 있느냐고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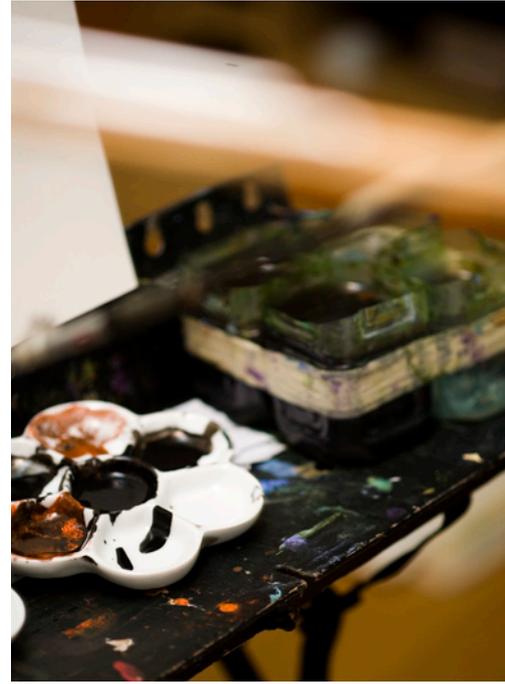
“저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 어떤 유행이나 사조도 따르지 않으려고 애씁 니다. 굳이 작품관이라 한다면 어떤 형식이라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유로움과 예측할 수 없는 파괴, 그리고 우연한 생성을 중시하지요. 제 능력 밖 영역을 화폭에 표현하기 위해 온 힘을 쏟을 뿐입니다.”

김영수는 2004년에 세번째 개인전을, 2006년에는 네번째 개인전을 열어 10년 넘게 혼신을 바친 누드 드로잉 작품들을 선보였다. 작년 개인전 팸플릿에 실린 작품은 특히 나를 빠져들게 만들었다. 참 묘한 느낌이다. 차면서도 따뜻한… 언뜻, 숨죽여 우는 여 인의 얼굴 같고, 녹색 번짐이 마치 분노나 슬픔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 작품은 낯은 것처럼 바래고 도드라진 기름종이에 그린 겁니다. 최대한 여백과 질감을 살리고 싶었어요. 어쨌거나 느낌은 전적으로 보시는 분 몫입니다. (웃음) 작가는 모델로부터 받은 감성을 예술적 에너지로 바꿔 새로운 형체를 창조하지요. 감상자가



입으로 마음 속의 그림을 붓끝에 보낸 흔적들. 힘주어 짓씹은 자국이 험난한 창작의 길을 가는 작가의 치열한 노력을 조용히 속삭이고 있다.



어떻게 느낄까 일부러 의식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그림 작업할 때 혹시 모델이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림은 내가 자유인이라는 유일한 증거”

그의 언어는 차분하면서도 조곤조곤하다. 그러나 한 마디 한 마디에 관조와 달관을 이룬 사람만이 구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 같으면서도 단호한 정곡이 있다. 또한 표정에 일그러짐이 없다. 그래서 그의 예술관을 포함해 이것저것 질문하면서 나는 간간히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물었다. “아무래도 몸이 자유로운 작가보다는 많이 힘드실 텐데, 그런 면에서 부딪히게 되는 벽이 많으시지요?”

“창작하는 과정에서 벽은 그 어떤 작가라도 스스로 극복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림은 손도 입도 아닌, 영혼으로 그리는 거니까요. 다만 현실에서 느끼는 벽은 많습니다. 장애인이라는, 구축화가라는 시각으로만 작품을 평가하려는 경향들이 더러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비장애인 예술가들보다 작품성이 떨어질 거라는... 뭐 그런 거죠.”

“어느 한쪽이 불편하면 다른 감각이 예민해지듯, 구축화가이기 때문에 힘든 것만큼 남다른 감수성도 있겠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노력하지요. 그리고 겉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려고 역시 무진 애를 씁니다. 사물에 대해 끝없는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해답을 찾으려 고민하지요. 남다른 감수성이요? 글썽요... 그것 역시 감상하는 사람의 몫이 아닐까요?”

우리는 같이 웃었다. 인터뷰를 정리하며 나는 마지막 질문이랍시고 어이없이 지독

한 우문을 던지고 말했다.

“몸도 그러신데 음..., 그렇게 힘든 작업을 왜 계속 하시지요?”

“자유롭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살아있음의 증거니까요. 제 영혼의 호흡이고 괴로움이자 기쁨이니까요! 그림을 그리는 순간만큼은 저는 장애인이 아니랍니다. 붓을 손에 잡고 있는지 입에 물고 있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하니까요. 화면과의 대화 속에 빠지다 보면 벽찬 감동 외에 아무 것도 못 느끼니까요. 제가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유일한 순간이지요.”

인터뷰가 끝난 뒤 헤어지면서 나는 그의 손을 덥석 잡아보았다. 생각 외로 따뜻했다. 마우스 버튼을 간신히 누를 수밖에 없는 상태의 축 늘어진 손이었지만, 전해오는 뜨거움은 고통을 감내한 사람만이 뿜어낼 수 있는 영기(靈氣, Aura)였다.

김영수는 분명, 누드 드로잉에 있어서만큼은 혼자만의 영역을 구축한 완숙기 작가다. 그 자신은 진행 중이라고 겸허하게 표현하지만. 바람이 있다면 그의 작품 활동이 오래도록 활발하게 전개됐으면 하는 소망이다. 그는 이미 육체적 한계와 상관없이 나름의 세계를 발견하고 천착해 포기하지 않는 작가로 거듭났으므로...

글쓴이 이동환 KT문화재단의 위촉 집행위원, '씨알논술학당'의 대표강사로 활동했으며, 논술교육 사이트 '온글닷컴'을 운영하기도 했다. 현재 '이동환 생각교실'의 대표다.